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 수도복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

조 정 미[†]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 전공

A Study on the Symbolic Meaning of Religious Habits in the Korean Catholic Women's Religious Society

Jungmee Cho[†]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6. 1. 2.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of the symbolic meaning of religious habit in the Korean Catholic Women's Religious Society.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investigating a wide range of document including those on museum of religious society, and by considering the questionnaire and interviews on the habit. The results were as follow. The action and ceremony relation to religious habit should be expressive of evidence of Jesus, poverty and modesty, protect from external temptation, married with Jesus. External form of the religious habits should be expressive of Vergin Mary, bride of Jesus, yolk of Jesus, the Sacrament, atonement, innocenc, eternity, confirm one's determination, poverty, rasario, adversity. Symbolic meaning in external form of the religious habit was expressed more definitely, variety than action and ceremony relation to religious habit by well desined item, detail, color and accessory of habits. All over the world religious societies allowing ordinary clothes but most korean women's religious societies still hold on religious habit. Present style is very simplyfied than the traditional one. But many religious societies make efforts for keeping the symbolic meaning of religious habit.

Key words: Korean catholic, Women's religious society, Religious habit, Symbolic meaning;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 수도복, 상징성

I. 서 론

진리나 하느님이 초월적인 존재인 것처럼 종교의 내용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신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서나 종교의식을 보면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비유라든가 상징으로서 초경험적이고 초자연적인 차원을 설명하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종교복식은 단순한 표현욕이나 장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 의미와 내면세계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및 가치관을 가치적으로 나타내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체에 신분, 품위, 제사의 거룩함과 성스러움, 종교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역할 및 지위, 상황 등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복식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종교복식 중의 하나로 위와 같은 상징적인 특성들을 잘 나타내고 있다. 가톨릭 종교복식은 신부들의 전례복과 수도자의 수도복으로 크게 분류 될 수 있다. 외적인 의식을 주도하는 역할에 따른 시각적 효과가 부각되는 전례복과는 달리 수도복은 철저히 내적인 수행과 성찰, 봉사에 대한 수도회 각각의 독

[†]Corresponding author

E-mail: jungmee@catholic.ac.kr

본 연구는 2005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특한 영성을 나타내는 복식으로 전례복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수도복의 형태는 대부분의 수도회들이 수도회가 많이 설립되던 12, 13세기 수도복의 형태를 수세기 동안 유지해 오다가 1965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수도생활 쇄신 적용에 관한 교령’이 선포된 이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교령의 영향으로 수도복의 형태는 지역의 특성과 시대 변화를 고려하였으며, 각 수도회 고유의 은사(Charisma)나 수행하는 사도적 역할에 맞추어 변형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현재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들은 봉쇄 관상 수도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활동 수도회들이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현대적으로 변화된 형태를 기초로 한 수도복을 착용하고 있다(조정미, 1998).

가톨릭 종교복식에 관한 연구는 주로 미사 예식을 집전하는 사제들의 전례복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김현(1982), 김희선(1993), 임상민, 김현경(1998), 문선구(1995), 손세희(1976), 최상범(1985) 등의 비교적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수도복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으로 황문지(1986)와 황경순(1988)연구가 있으나 서구 수도회의 역사를 중심으로 했거나, 국내 특정 수도회의 수도복 변천사를 다룬 연구로서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지고 현재 80여개에 달하는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 각기의 고유 영성에 따른 수도복의 특성과 의미를 규정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 수도복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선행연구가 진행되었다. 1단계 연구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수도복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온 한국 여성 활동 수도회의 역사에 따른 수도복의 변천 과정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한국 여자 수도회 수도복 착용 실태 및 형태적 특성들을 조사함으로써, 한국 교회에서 수도복의 토착화를 달성하고 시대와 장소의 사정 및 다양한 사도적 임무에 적합한 수도복 디자인을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조정미, 1997; 조정미, 1999). 2단계는 외부에 노출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활동 수도회와는 달리 평생에 걸친 봉쇄생활 속에서 자신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생활하는 한국 여성 봉쇄관상 수도회의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지켜져오는 독특한 수도복 문화나 생활, 형태적 특성, 중세때 부터 내려온 패턴상의 특성들을 연구하였다(조정미, 1998).

위와 같은 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수도복의 형태적 특성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수도자들이 수도복을 입는 진정한 목적이자 의미인 수도복의 착용 및 예식행위에 나타난 내적 상징성과 수도복 형태에 나타난 외적 상징성을 연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 세기가 넘게 토착화를 시도해온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들의 다양한 영성이 그들의 복식에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기 고유한 은사(Charisma)따라 다양한 수도양식을 갖고 있는 관상, 반관상, 활동 수도회 모두를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수도자 양성 단계에 따라 각 수도회의 회칙이 정한 형태와 형식에 의해 착용된 수도복과 수도복에 관련된 행위나 예식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수도회와 수도복 관련 자료들의 문헌조사와 한국 여자 수도회의 수도복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 조사자료(조정미, 1997; 조정미, 1998; 조정미, 1999)를 바탕으로 주요 상징성이 나타나는 수도회를 직접 방문하여 수도회의 회칙과 역사적 자료조사, 수도복 담당 재봉실 수녀들과의 면담, 허락한 수도회에 한한 수도복 촬영 등을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II. 수도복의 착용 및 예식행위에 나타난 내적 상징성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는 수도복을 입는 행위자체와 수도복과 관련된 예식 및 예절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들을 갖고 있었다.

1. 하느님을 증거

일반적 의미에서 수도생활은 대부분의 큰 종교에서는 항상 찾아 볼 수 있는 삶의 한 양식으로써 그것은 구도자가 삶의 의미를 절대자에게서 찾으려는 인간 생활의 본질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리스도교에서의 수도생활은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신 사실과 하느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빠스카 신비에 의한 구원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신앙인이 ‘이미 오셨으나 아직 완전히 오시지 않은 하느님’을 계속 찾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적인 한 차원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수도



<사진 1> 살트르 수도회의 착복예식
(자료출처: 수도회 소장 자료)

자들은 스스로를 극단적 회심을 의미하는 수도생활 그 자체로써 하느님의 존재와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고(이덕근, 1994), 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수도자들은 자신들의 수도복을 입는 행위 자체를 하느님을 증거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착용하는 수도복을 ‘증거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수도 공동체 입회 허가과 소속의 표상

착복예식(着服禮式)은 수도자들에게 수도복을 입혀 주는 예식으로 서원예식(誓願禮式) 중의 가장 오래된 의식으로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다(사진 1), (Pelliccia & Rocca, 1974). 수도자가 되는 상징은 수도복을 받으면서 이루어졌고, 수도복 착용은 수도자 생활을 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미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수도자가 수도복을 입혀 준다(R.B., 1980). 성 베네딕도회의 전통은 착복식 때 새로 들어온 형제의 옷을 벗긴 다음 “우리 공동체의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말과 함께 수도복을 입힌다. 이로 인해 한 수도자가 구체적인 한 수도공동체에 속한 형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수도복 착용의 의미는 세속을 떠나 수도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허가과 하느님의 축성의 표시였는데 특히 수도자에게는 한 공동체의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확실한 봉헌을 의미하며 한 수도자가 구체적인 한 수도공동체에 속한 자매임을 드러내는 표상이다.

3. 가난과 겸손

수도자들은 허원을 할 때 순명과 가난과 정결을 서

약한다. 수도복은 이 세 가지 약속을 다 드러내지만, 특히 가난과 겸손의 표시를 잘 드러낸다. 수도자들에게는 수도복을 입는 자체가 속세의 사치에서 벗어난 가난의 시작을 의미한다. 수도자들의 개인 소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근래에 와서야 개인별로 옷이 배당되기 시작하였으며 돌아가신 분의 옷을 태워 버리는 우리의 풍속과는 달리 후배 수도자들이 수도복을 이어받아 입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또한 수도복의 착용은 신자들의 존경과 동시에 타 종교신자들에게 의한 꾀박의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수도복은 이 꾀박과 멸시를 묵묵히 참아내는 겸손의 상징이기도 하다.

4. 외적인 유혹에서의 보호

옷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면을 갖고 있듯이 수도복 역시 수도자를 외적인 유혹에서 보호해 주기도 한다. “수도자로서의 완성은 자신이 수도복을 입고 관에 누워 있을 때 확인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죽을 때까지 수도생활을 이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수도생활을 수도복은 경우에 따라서는 넓고 무거우며 노출이 심하지 않고 화려한 색이 아닌 옷으로, 세속적 유혹과 타인의 욕심으로부터 수도자를 보호하여 죽을 때까지 수도자로서 살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인영균, 2002).

5. 그리스도와와의 결혼

종신서원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하느님께 봉헌하



<사진 2> 성심수도회 종신서원 예식(한복착용)
(자료출처: 수도회 소장 자료)



<사진 3> 거룩한 열정의수도회 종신서원 예식
(면사포와 화관 착용)
(자료출처: 수도회 소장 자료)

고 그리스도와 결혼한 자로서 동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종신서원전 정식의 수도복을 입기 전에 예복으로 속세의 결혼예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는 흰색의 서양 웨딩드레스에 면사포와 화관을 쓴 모습이나 혹은 수도회의 토착화 노력에 따라 한복에 죽두리나 화관, 면사포를 쓴 모습을 많이 하였다(사진 2). 최근에는 많이 간소화 되어 수도복에 화관이나 면사포만을 쓴 모습으로 약식화 되었으며<사진 3>, 수도회에 따라서는 일반 수도복에 꽃 정도만 달고 종신예절을 거행하기도 한다.

6. 영원성(이승과 저승의 결합)

일반적으로 종신서원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까지 영원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신서원을 한 수도자들이 사망하였을 때 시신에 수의로서 서원 때 착용했던 수도복을 입히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특히

종신서원에 사용했던 화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종신서원 시 하느님과 의 결혼이라는 뜻으로 서원자들이 화관을 많이 사용하는데, 수도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평생 간직했다 서원을 잘 이행했다는 뜻으로 사망 시 관속에 넣고 장례를 치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기도 하여, 유언으로 남기기도 한다. 고대로부터 꽃과 고리의 상징적 표현이 결합된 화관은 다양하게 길운, 성스러운, 다산, 입문,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하나로 결합한다는 것을 뜻하며(폰테너, 1998/2002), 이것이 오늘날 까지도 수도자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간추려 <표 1>에 제시하였다.

III. 수도복 형태에 나타난 외적 상징성

수도복은 수도복을 입는 행위 자체의 의미이외에도 형태, 색상, 소품 등에 각 수도회의 영성과 설립자의 은사를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1. 성모 마리아

가톨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공경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모친이 되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천주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친이 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분이다. 성경에도 하느님께서 어느 누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실 적에는 항상 그를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은총과 덕행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여성 수도회는 성모 마리아를 헌양하며 그분의 삶을 본받는 것을 지양한다. 특히 한국의 여성 수

<표 1> 수도복의 착용 및 예식행위에 나타난 내적 상징성

표현 형태	상징적 의미	유 래
수도복을 “증거복”이라 칭하기도 함	하느님을 증거	빠스카의 신비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에서 유래
착복예절	공동체 입회 허가와 소속의 표상	4세기 수도공동체 초기부터 시작 수도복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의식
가난한 자의 옷 착용, 돌아가신 분의 옷을 물려 입음	가난과 겸손	
수도복 착용	외적인 유혹에서 보호	
종신서원 시 결혼예복을 입거나 면사포, 화관 착용	그리스도와의 결혼	그리스 로마시대의 풍습에서 유래 국내에서는 한복을 착용하기도 함 최근에는 간소화
종신서원시 수도복을 수의로 사용	영원성(이승과 저승의 결합)	

도회들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보다 확고하다. 복된 동정녀요, 어머니이신 마리아에게는 많은 호칭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분을 나타내는 다양한 상징물들이 있다. ‘수태예고’(루가 1, 26-38)는 백합으로 상징되며 ‘복되신 동정마리아’는 백합 또는 달(Moon), ‘마리아의 탄생’은 닛과 십자가로서 표시한다. ‘왕 중의 왕의 어머니로서 여왕의 칭호를 받으신다’는 여왕관으로 표시한다. 수도복에서 이러한 상징들은 수도회 문장이나 이를 응용한 뺨지, 목걸이 등으로 표현되어 착용되고 있다. 또 성모 마리아를 표시하는 ‘Ave Maria’의 A자와 M자는 수도자들의 머리수건의 뒷모양 형태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성모님색은 ‘푸른색’ 즉 하늘색이다. 따라서 국내 많은 여성 수도회들이 검정, 회색, 고동색, 흰색 다음으로 수도복 색에 하늘색과 곤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공식 명칭으로 볼 때 이들은 모두 파란계통으로 지성, 평화, 관조의 색조이다. 파란색은 물과 차가움을 나타내고, 하늘, 무한, 그리고 존재가 생겨나와 다시 되돌아가는 공(空)을 상징한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파란색은 하늘의 여왕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의 색깔로 신앙심, 연민, 그리고 세례의 강물을 가리킨다.

2. 그리스도의 신부

여성 수도회의 수도자들은 대부분 수도회의 영성을 상징하는 다양한 형태의 머리수건(베일: veil)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머리수건은 로마 시대에 신부(新婦)가 결혼식 때 오렌지색 베일인 플레이메눔(flammeum)으로 머리를 장식하는 것에서 유래 된 것으로 교회도 동정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생각해서 베일을 택했으며(Pelliccia & Rocca, 1974), 이후 현재까지 베일은 축성된 여자의 독특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의 대부분의 활동 수도회들이 걸 머리수건을 유지하고 있지만 머리카락을 철저히 가리는 속 머리수건(sugole와 cuffia)은 착용하고 있지 않은 반면 봉쇄관상 수도자들의 대부분은 보속과 순명의 의미로, 또는 자신이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된 영혼이라고 의식하는데 도움이 되며 기도와 침묵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이 두가지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다. 수도자들이 쓰는 머리수건의 유래는 구약 시대의 부녀자들 쓰던 너울로까지 그 유래가 올라간다. 창세기 24장에 리브가가 장차 남편이 될 이삭의 앞에서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다”라는 기록이 있고, 초기 교부들은 베일의

착용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다. 테르툴리아노(160-223)는 자신의 저서들에서 여성들의 단정한 몸가짐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2-3세기 교회 신자들의 엄격한 신앙생활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동정녀의 베일》이라는 저서에서는 여자들이 성당이나 길거리에서나 베일을 쓰고 다닐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교부들의 가르침은 수도생활을 원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새롭게 발전하여 3세기부터는 그리스도와 맺은 영적인 혼인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주교들이 베일을 축성하여 동정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착용하게 하였다. 이것이 현재 수도자들이 쓰는 베일이 되었다(변기찬, 1977).

3. 경외심과 속죄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의미 이외에 머리수건을 착용하는 상징적 이유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과 속죄의 의미도 강하게 나타난다. 출애굽기 34장에는 야훼 하느님을 만나고 나온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기에 다시 하느님과 대화하려 들어갈 때까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구약 성서는 야훼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막았다고 전하고 있다(출애 26-27). 이 휘장은 속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구약 성서가 전하고 있는 수건은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 속죄의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오늘날까지도 이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그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머리수건을 엮는 풍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풍습은 이후 교회의 전례와 역사에 도입되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여성들의 미사포나 여성 수도자들의 머리수건에 그 상징적 의미가 강하게 남아 있다.

4.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혹은 십자가를 짊어짐

성의(聖衣)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혹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수도복 위에 덧입는 아이템이다. 수도회에 따라 특별한 행사 때에만 입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입기도 한다. 국내에서도 성의는 흔히 원어대로 스카풀라(scapulare)라고 부른다(사진 4, 5). 두장의 천의 상단을 기워 만든 옷으로 목부분이 뚫려있다. 어깨에 걸쳐 가슴과 등 쪽으로 길게 늘어뜨려 입는 소매없는 수도복의 일부로서 폭은 어깨 폭과 같고 길이는 원래는 복사뼈에



<사진 4> 가르멜 관상 수도회의 갈색 스카폴라 착용모습



<사진 5> 성도미니꼬 관상 수도회의 스카폴라 착용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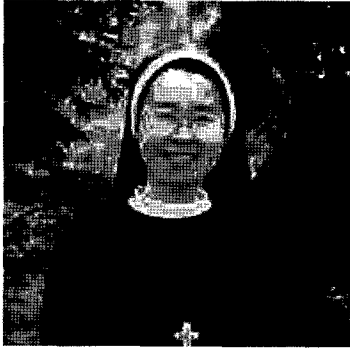
<사진 6> 샬트르 수도회(수도복에 현대적으로 형상화 됨)

이르지만 현대에 와서 수도복에 맞추어 짧아지기도 한다. 원래는 라틴어의 어깨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다. ‘스카폴라’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것을 착용하게 된 의미 때문에 ‘성의(聖衣)’라고 불렀다. 스카폴라의 기원은 베네딕토회 수도승들이 일할 때 수도복 위에 일운을 덧입는데서 유래하였다. 베네딕도 규칙서에서는 수도자들이 들에서 일할 때 이를 입도록 하였는데 이때 스카폴라는 노동하는 수도자를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상징 때문에 점차 수도회에서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가슴과 등쪽으로 늘어뜨린 스카폴라를 팔 아래에서 띠로 동여메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십자가 모양을 띤 것이었다. 즉 스카폴라를 착용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나 십자가를 짊어지는(마태 11, 28-30)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또 이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1세기 베네딕토회 이후 여러 회에서 이것을 착용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관련된 신심은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나 결국 교회는 프랑수아 주교 보쉬에(J.B.Bossuet)에 이르러 스카폴라를 신심의 상징으로 그 가치를 선언하고 인가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에 17개 정도의 착의를 인가받은 수도회가 있으나 이중 한국에 들어온 수도회로 가르멜회의 갈색 스카폴라<사진 4>, 삼위일체회의 붉은색과 흰색 십자가가 새겨진 흰 아마포 스카폴라, 빈센시오 아 바오로회의 스카폴라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가르멜회에는 가르멜산의 계시라고 불리는 갈색 스카폴라에 얽힌 유명한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국내 수도자가 착용하는 스카폴라는 발

목이나 무릎을 덮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다.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그 형태와 모양이 간편하고 간소화 되거나 따로 스카폴라를 착용하지 않고 수도복 디자인에 현대적으로 형상화 시킨 경우가 많았다. 현대적인 수도복을 착용하는 활동 수도회의 대부분이 가슴 부위에 하나 혹은 두개의 깊은 암홀턱(armhole tuck) 넣고 이것을 스커트부분의 주름과 연결시키거나, 어깨에서 시작하는 프린세스 라인(princess line)을 사용하여 스카폴라를 착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수도복에 형상화하여 성의에 대한 신심을 강하게 상징하였다(사진 6).

5. 성체와 성혈

가톨릭에서는 미사에서 성체성사 때 사용되는 축성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고 있으며 모든 자연이 하느님의 선물이자 헌존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현대에 와서 성체에 사용되는 빵은 둥근 원형태의 제병으로 대체되었는데 여기서 둥근 원은 성체를 상징하는 형태이다. 수도복에서는 머리수건의 이마부분에 흰 천을 덧 대거나, 원 형태로 특별히 성형된 뿔테를 넣어 성체 상징을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 또한 많은 수도회들이 수도복에 둥근 롤칼라(roll collar)를 사용하므로써 성체를 표현하고 있었다(사진 7). 성체가 형태로 형상화된 반면 성혈은 붉은색으로 형상화되고 있었다. 붉은색은 성혈 외에 주의 수난당시의 고난의 장면을 상징하기도하여 순교, 뜨거운 사랑, 주의 수난



<사진 7> 사람의 성령수도회의 머리수건에 덧댄 둥근 컵과 흰 롤칼라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한국 순교복자회에서 머리수건의 형태 끝 도련에 홍색선을 둘러 순교자의 피를 상징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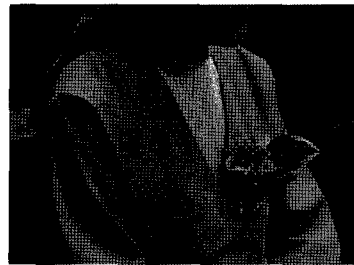
6. 동정녀와 순결의 고귀함

국내의 모든 여성 수도회의 수도자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동정성을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수님의 구속사업은 성모 마리아께서 동정녀로서 원죄 없이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으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이지만 보통 어머니와 달리 그는 끝끝내 처녀(處女)의 몸이었다. 즉 예수를 낳기 전에도 처녀였고, 또 예수를 낳은 다음에도 처녀의 몸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실현된 기적이며, 이는 가톨릭 교회의 신앙조목(信仰條目) 가운데 하나이다(교리서 499). 이와 같은 이유로 the Virgine(동정녀)의 V자를 수도회에 따라 다양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는 머리수건의 뒷 도련을 V자 모양으로 뽀족하게 하거나 흠이 파이게 하는 형태와 수도복에서의 V neckline의 사용이다(사진 8, 9). 또한 수도복에서 흰색은 동정녀의 순결함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색이다. 구약에서 흰색은 동물(Zech, 1:8), 우유(Gen, 49:12), 눈(Isa, 1:18)과 같이 어떤 대상의 자연적인 색이나 의복을 묘사할 때 사용하였다. 특히 의복을 만드는 재료인 직물의 경우 세정제를 사용하여 빨아서 정련 및 표백을 하고 햇빛에 건조시켜 희게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깨끗하게 변모된 흰색의 직물은 죄로 오염된 인간을 정화시켜 고귀하고 순결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Isa, 1:18, Dan, 11:35, 12:10). 일반적

으로 흰색은 맑음 순수함, 깨끗함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흰색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는 확대 심화되어 세속의 때가 묻지 않는 깨끗한 육신과 영혼을 지닌 고귀하고 순결한 여성성을 상징하는 색채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의 수도회들은 수도복 전체를 흰색으로 하거나 머리수건, 칼라(collar) 등에 부분적으로 흰색을 사용하여 순결함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흰색의 머리수건은 성모 마리아가 쓰셨던 것으로 상징되어 많은 수도회에서 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또한 종신서원



<사진 8> 성바오로의 딸 수도회의 V자 모양의 베일 (자료출처: 수도회 소장 자료)



<사진 9> 샬트르 수도회의 V자 모양의 네크라인 (자료출처: 수도회 소장 자료)



<사진 10> 성 글라라수도회(청원기나 수련기 수도자는 흰색 머리수건 착용)

후의 정복에서는 은사에 따라 고유 색상의 머리수건을 착용하는 수도회에서도 청원기나 수련기의 수도자들에게는 흰색 머리수건을 착용하게 하여 어린 수도자의 순수함과 순결의 고귀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사진 10).

7. 부활과 영원한 생명

코프(cape)는 수도자들의 종신서원이나, 장례미사 등의 특별한 의식 때만 착용하며, 상징하는 바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다. 성직자들이 특별한 의식 때 입는 망토형의 반원형 코프는 교황청의 비망룩에 의하면 1851년부터 착용되었다고 한다. 이 옷은 수도자들과 사제들이 외투를 의식에서 사용함으로써 전례복으로 된 것으로 라틴어인 *cape*는 8세기경에 외투에 붙어있는 모자의 이름이었고 원래는 가빠 풀뤼비아라(*cappa pluviala*)라고 하며 *pluviala*는 원래 우비(雨備)라는 뜻을 가진 용어로서 10세기에 우비라는 뜻은 없어지고 전례복인 코프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직자들의 코프는 장엄 미사용으로 매우 화려하고 장식적인 옷으로 수를 놓거나 보석, 금속 십자가 등으로 치장하나 수도자들의 코프는 장식이 없는 매우 단순한 것이다. 간혹 검소와 겸양을 표시하기 위하여 몇몇 수도회 등에서는 재단된 면의 울을 처리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폭이 3m 정도의 반원형의 케이프(*cape*) 형식의 코트로 앞 중심은 끈이나 고리로 여민다(손세희, 1976; 한경애, 1990; 황경순 1988).



<사진 11> 가르멜 관상수도회의 장례예식 때 흰 코프를 착용한 모습
(자료출처: 수도회 소장 자료)

국내에서는 수도복에서 최고의 격식을 갖추는 이 코프는 관상 수도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착용 수도회에서도 서원예절이나 장례예절에 한하여 착용되고 있다(사진 11).

8. 금욕과 고난

많은 수도회들이 채택하고 있는 수녀복의 검정색은 세속적인 것에서 탈피하고 엄숙하고, 절제된 금욕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금욕성은 개인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표현하는 이미지로서, 종교적으로는 육체의 수요를 끊고 성욕을 억압하는 것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고, 윤리적, 철학적으로는 성욕을 비롯하여 명예, 이익, 지위 등 세속적인 욕망을 억압하거나 없앴으로써 도덕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는 금욕주의 사상에서 잘 드러난다(김태현, 1996). 5-11세기의 전 유럽에서 전형적인 기독교 금욕주의가 팽배하였다. 이때 검정색은 고대의 종교와 세속적인 금욕주의와 관능적인 생활에 대한 거부와 관련되었으므로 많은 승려와 고행자, 사제와 학자들은 자주 검정색의 옷을 입었다. 서구문화의 정신적인 바탕을 이루는 그리스도교에서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검정색은 고난을 뜻하고 세속적인 욕구를 은폐하므로 로마 가톨릭 교회 성직자들의 의상은 검정색이었다(문혜정, 김민지, 1998). 국내에서는 수도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초기에는 대부분의 수도회가 검은색 수도복을 착용하였다. 그러나 신자들과 밀접하게 생활해야 되는 활동 수도회가 많아짐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죽음과 비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의 색깔을 일상복으로 착용하는 것에 대한 거리감과 여름철의 더위 때 신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서 오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전체를 다른 색으로 바꾸거나 겨울철에만 검은색을 착용하는 수도회가 많아졌다. 또한 색채에서 뿐만 아니라 몇몇 봉쇄관상 여성 수도회의 머리카락 한 울도 보이지 않는 여러 겹의 머리수건과 사계절 겹고 긴 중세에서부터 내려오던 수도복의 착용은 금욕과 고난의 대표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9. 가난

대부분의 수도회에서 수도자는 서원 시 순명, 정결과 함께 가난을 서약해야 할 정도로 가난은 수도자들의 기본 규칙이다. 따라서 수도복 형태나 착용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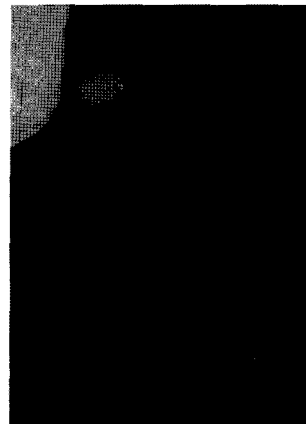
<사진 12> 작은자매 전교회의 수도자들이 (빈민촌에서 활동)

곳곳에서 가난의 상징성은 다양하게 드러난다. 대체로 수도복은 검정색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소박한 무채색 계통으로 정련되지 않은 양모의 회색이나 고동색이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태는 단순, 소박하며 값싼 소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착용되고 있는 원피스 형태의 수도복은 유럽의 하층 노동자의 복식에서 유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세부터의 규칙이 강조 되어온 양평의 성글라라 봉쇄관상 수도회에서는 아직까지도 밀단을 처리하지 않아 울이 풀리는 코프를 착용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었다. 이는 꾸미지 않는 겸손과 가난을 상징한다.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가난은 특히 더 상징적으로 강조되기도 하는데 빈민촌에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작은자매회 수도자들은 일반 수도복에서 볼 수 있는 흰 칼라와 잘 다림질된 주름같은 최소한의 격식도 완전히 무시하고 가장 가난한 차림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은 한때 소박한 청기지로 원피스를 만들어 입기도하여 블루 시스터즈(blue sisters)라고 불려지기도 하였다. <사진 12>에서 보듯이 이들은 칼라가 없는 원피스, 노동자를 나타내는 간단한 머리수건, 맨발에 검소한 샌들을 신고 가난한 자들 보다 더 가난한 차림으로 빈민촌에 거주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있다.

10. 결의와 각성

과거의 수도자들은 넉넉한 품의 수도복을 단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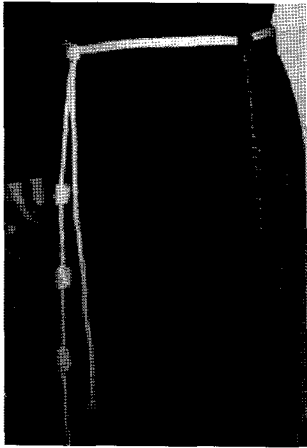
줄로 묶었는데, 이는 수도복이 고대부터 유래된 튜닉(tunic)스타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장을 조절하거나 행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맨 것이었다. 띠는 이와 같은 기능성 이외에 상반신과 하반신을 가르는 역할과 함께 모양으로도 몸을 꾸며 ‘왕이나 권력자의 품위내지 힘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띠는 일, 싸움 등 결의의 상징이며 악마와의 투쟁을 참고 견디는 각성의 상징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띠는 권위와 직분의 표시였다. 탈출기에는 사제로서 성별(聖別)되는 자는 긴 옷을 입고 장식띠를 매고 터번을 맨다고(탈출 29, 8-9)되어 있다. 이사야에 따르면 야훼 하느님께서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진실로 띠를 띠리라”(11,5)고 하면서 띠는 단지 권위를 나타내는 장식이기를 넘은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수도자들에게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순수성과 그리스도께 봉사하려고 대기”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극기의 중요성을 각성”하게 하는 상징으로 사용된다. 수도자들은 띠를 매면서 “주여, 조찰 함의 띠로 나를 띠워 주시고 내 안의 사욕을 없이 하사 절제와 정결의 덕이 있게 하소서(Pelliccica & Rocca, 1974)”라는 기도문을 바치기도 한다. 가톨릭 교회는 예로부터 띠를 매우 소중히 여겨 왔으며, 성경에서도 띠의 상징성이 많이 표현되고 있다. 루가 복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깨어 있다가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은 행복하다”(15, 35)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늘 준비하고 있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바오로가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



<사진 13> 심모승천 봉헌자 수도회의 검은 가죽띠

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알리는 준비를 신으로 신고 있어야 합니다”(6, 14-15)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마음가짐을 촉구하고 있다(Christiaens, 27-29). 수도복에 착용되는 띠들은 각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다양한 소재와 형태로 각기 다른 결의(決意)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을 따

르는 성모승천 봉헌자 수도회는 이 상징으로 검은 가죽 띠를 매고 있다(사진 13). 또한 띠에 매듭으로서 여러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는데 성 글라라 회에서는 3개의 매듭이 있는 띠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정결, 순명, 가난의 결의를 의미하였다(사진 14).



<사진 14> 양평 성 글라라 수도회의 매듭띠와 묵주(로사리오)를 찬 모습

11.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

묵주(rosarium, rosary)는 ‘장미화관’, ‘장미 꽃다발’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이며 묵주(默珠), 혹은 묵주의 기도를 가르치는 말이다. 묵주란 구슬이나 나무 알을 열개씩 구분하여 여섯 마디로 엮은 염주형식의 것으로 십자가가 달려 있는 물건이며, 이를 사용하여 성모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를 묵주의 기도라 한다. 이 기도는 수도회에서는 생활이 한 부분으로서 모든 수도복에는 반드시 이 묵주를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거나 허리띠에 이 묵주를 걸고<사진 14> 다니면서 수시로 묵주기도를 올리는 수도생활과 수도복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묵주기도의 기원은 초기 교회 때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교도들은 신에게 자신을 받친다는 의미로 머리에 장미꽃을 엮은 화관을 쓰는 관

<표 2> 수도복 형태에 나타난 외적 상징성

표현형태	상징적 의미	유래
머리수건의 뒷 모양을 A나 M의 형태로 함 푸른색의 베일이나 수도복	성모마리아 (Ave Maria)	그리스도의 모친인 성모 마리아에게 하느님이 특별한 덕행과 은총을 부여함. 거의 모든 여성수도회는 성모 마리아를 헌양--
머리수(베일)을 착용	그리스도의 신부, 경외심과 속죄	로마시대의 신부가 flammeum을 착용한 것에서 유래, 구약 성서에서 하느님 앞에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에 유래
성의(scapulare)	그리스도의 멍에 혹은 십자가를 짊어짐	베네딕도 수도회의 일웃에서 기원 십자가 모양에서 유래
머리수건의 둥근캡, 물칼라 붉은색 파이핑	성체와 성혈	성체성사의 제병의 모양과 순교 때 흘린 피
흰색 V넥크라인, V자 모양의 머리수건 뒷 모양	원죄없이 잉태하신 동정녀(Vergin Mary), 순결	구약에서의 흰색 동물, 우유, 눈등을 고귀하게 표현, 직물을 정련하고 표백하는 것을 오염된 인간의 정화에 비유
코프 (corpe)	부활과 영원한 생명	8세기경 수도자들의 외투에서 유래
검정색	금욕과 고난	5-15세기 사이에 나타난 전통적 기독교 금욕주의의 팽배에서 유래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서는 흰 칼라와 주름 같은 최소한의 격식도 무시	가난	모든 수도회의 기본 영성, 특히 가난과 봉사를 영성을 하는 프란체스칸 계통의 수도회들이 더욱 실천
각종 띠	결의 혹은 각성-정결, 순명, 가난	고대의 튜닉 스타일의 수도복에서 기장을 조절하거나 행동을 편하기 위해 띠를 맨 것에서 유래
묵주(rosarium)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로마시대의 검투장에서 희생된 순교자들이 쓰던 장미화관에서 유래

습이 성행했다. 초기 교회신자들도 이 영향을 받고 기도 대신 장미꽃다발을 바치기도 하였다. 특히 박해 당시 신자들은 사자 밥이 되기 위해 원형 경기장 안에 끌려들어 갈 때, 장미화관을 머리에 쓰고 들어갔다. 신자들은 밤중에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떨어진 장미꽃들을 모아놓고, 꽃송이 마다 기도를 바쳤다. 이 밖에 은수자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시편 50, 100, 150 편씩을 매일 외우던 관습이 묵주기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도 있으며, 은수자들이 작은 돌맹이나 곡식 낱알을 둥글게 엮어 하나씩 굴리며 기도 횟수를 세는 데서 기원했다고도 한다. 12세기에 들어서 삼중기도가 널리 보급되자 성모에 대한 신심도 매우 깊어졌다. 그래서 시편으로 바치던 주의기도를 대신해 성모송을 외우기도 했는데, 이를 성모의 시편이라고 불렀다. 로사리오기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해왔는데, 오늘과 같은 묵주기도는 15세기에 생겨났다. 도미니코 수도회의 로체(Alan de la Roche) 수사가 1464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강생과 수난 부활에 따른 환희, 고통과 영광 등 세가지로 나눴다. 이 기도가 널리 퍼져 15단 형식의 오늘날의 묵주기도이다. 이와 같이 묵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영경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가장 먼저, 가장 깊은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사신 성모를 통하여 그분의 신비를 접근하고 친밀해지며 구원의 신비와 일치하면서 성모처럼 인류 구원의 협조자 구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상징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간추려 <표 2>에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앞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 여성 수도회 수도복은 수도회의 영성에 따라 다양한 형식의 형태와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수도복의 착용 및 예식행위에 나타난 내적 상징적 의미는 하나님을 증거, 수도공동체 입회허가와 소속의 표상, 가난과 겸손, 외적인 유희에서 보호, 그리스도와와의 결혼, 이승과 저승을 결합하는 영원성 등이었다. 수도복 형태에서 나타나는 외적 상징적 의미들은 성모 마리아,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 성체와 성혈, 경외심과 속죄, 동정녀와 순결의 고귀함, 부활과 영원한 생명, 절의 혹은 각성, 금욕과 고난, 가난, 성모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들로 행위에서 보다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신심을 표현하는 섬세한 표상들로 나타났다.

한국에 여성 수도회가 들어온 것은 1888년 샬트르 성 바오로가 들어 온 것이 처음이다 초기의 수도회들은 기원전부터 내려오는 서구 수도복의 전통적 양식과 상징성을 그대로 답습하였으나 점차 한국 수도회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형식과 형태 면에서 토착화와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에 의한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수도복 자체의 의미와 수도회의 영성에 따른 수도복 안에 내재된 상징성은 국내의 대부분의 수도회에서 각 수도회의 영성과 함께 오래된 전통으로서 다양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의복은 기능성과 상징성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수도복은 이중에서도 상징성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옷이다. 창세기의 인간 창조 설화를 보면, 하느님은 낙원에서 쫓겨난 헵베를 첫 인간에게 손수 가죽옷을 지어주셨다(창세기 3, 21).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말에 깊은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옷은 하느님의 보호와 배려를 상징하며 동시에 죄로 잃어버린 인간의 품위를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돌려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새 인간을 갈아입게 되었으며(골로 3, 10; 에페 4, 24), 구원의 상징인 흰 에복을 입고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흠숭을 드린다(묵시 7, 9-17). 이러한 성서적 상징이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에서 나타나는 상징성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수도복은 기본적으로는 수도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축성의 표시이자 청빈의 증거이며 어느 수도회에 속해있는지를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상징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도자의 말을 빌어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연구과정에서 많은 수도자들을 면담한 결과 수도복은 수도자 자신의 신분을 되새김질하게 도와주며, 끊임없는 수도자 자신의 쇄신과 변모의 수행과정을 온전히 담고 있는 표지이자 표상임을 부인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수도복이 수도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도복은 외적 수단 일 뿐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참고문헌

-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1977). *중요교리전래용어해설*. 서울: 가톨릭출판사.
김래현. (1983). *중요의식에 사용되는 직물의 상징문양과 색*

- 체에 관한 고찰-가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종익. (1994). *그리스도교의 상징들*. 서울: 가톨릭출판사.
- 김태현. (1996). *중세풍 복식의 미적가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현. (1982). 전례복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공주사 범대학 논문집*, 20, 208.
- 김희선. (1993). 現在 우리나라 가톨릭 사제복에 나타난 象徵性 研究. *복식문화연구회지, 창간호*, 69-80.
- 남윤숙. (1999). 성모자도상에 나타난 복색의 상징성. *복식*, 49, 95-112.
- 데이비드 폰테너. (1998). *상징의 비밀*. 최승자 옮김 (2002). 서울: 문학동네.
- 문선구. (1995). 수단이 주는 상징적 의미. *나루터, 창간호*, 40-42.
- 문혜정, 김민자. (1998). 서양복식에 나타난 검정색의 이미지 -르네상스 시대부터 19세기 말까지를 중심으로-. *복식*, 41, 207-223.
- 미셸 크리스티안스. (1995). *성서의 상징 50*. 장익 옮김 (2003). 서울: 분도출판사.
- 변기찬. (1977). 사도바오로와 여성의 베일에 관한 고찰. *신학전망*, 116(봄), 111-128.
- 손세희. (1976). *가톨릭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덕근. (1994). 축성 생활의 정체성-수도자의 본질과 역할을 중심으로-. *바오로의 뜨락*, 76, 8.
- 이주호. (1986). *종교복식에 나타난 색채상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인영균. (2002). 가톨릭 전례복과 수도복의 영성. *들숨날숨*, p. 29-31.
- 임상임, 김현경. (1998). 종교복식의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제1보)-고대 이집트를 중심으로-. *복식*, 39, 21-37.
- 조정미. (1997).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회의 수도복에 관한 연구-활동 수도회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21(2), 414-429.
- 조정미. (1998). 한국 가톨릭 봉쇄관상 수도회의 수도복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8(1), 71-20.
- 조정미. (1999). 한국 가톨릭 여성 수도자 수도복 토착화 디자인에 대한 연구. *복식*, 42, 5-24.
- 최상범. (1985). 전례복의 상징에 대하여. *나루터, 창간호*, 30.
- 한경애. (1990). *가톨릭교 전례복에 관한 연구-전례복중 제의의 형태, 문양, 기법을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6). *축복예식서*.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황경순. (1988). *가톨릭 수도복의 변천과 상징적 의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문지. (1986). Catholic 교회의 수도복식 考. *여성문제연구*, 14, 465-475.
- Hope, Welch. (1989). *The color compendium*.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Pelliccia, G. & Rocca, G. (1974). *Abito religioso: Dizionario degli istituti di perfezione I*, Rome.
- R.B.(Reguiar Sancti Benedicti). (1980). *수도승 양성과 서원*. 김요한 보스코 역 (1985). 서울: 코이노니아.